



취업박람회에 몰린 구직자들 8일 광주 남구청에서 열린 '2011 사회복지분야 구인구직 나눔박람회'에 참여한 10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종의 부스를 찾아 상담하고 있다. 이날 열린 박람회에서는 광주지역 사회복지기관 29개소가 참여해 총 283명을 모집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시도의회 임시회 상정 눈길끄는 조례들

광주 금연구역서 흡연땀 과태료 10만원

5·18 유공자·유가족에 매월 8만원 생계 지원 전남지역 노인들 보행 보조차 구입땀 보조금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가 최근 열리는 임시회에 민생 복지 및 시민 건강과 관련한 조례들을 잇따라 상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5·18 민주유공자 생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가 있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안도 제출됐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5·18 민주유공자로, 월 소득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다. 월 평균 소득이 170만 원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8만 원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은 67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재홍(민·동구2)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시장은 전 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중증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현(민·서구 2)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3급의 중증 장애가 있는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시의회에서 정병문(민·비례) 의원이 해당한다.

시의회는 이밖에 광주시가 상정할 전기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및 공공도로, 민자도로 통행료 100% 감면 및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이은방(민·북구 6)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 이다.

전남도의회는 8일 기획사회위원회 를 열고 송형근(민·고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본 회의로 넘겼다.

보행 보조차는 고령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제작된 보행 보조기구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남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이 보행보조차를 구입할 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남도는 조례 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들이 약 1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 은 오는 17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자금 대출 신불자 3만명 넘어

4개월새 4000명 증가·연체액 지난해말 3046억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비싼 등록금을 충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자 중 신용불량자(신용유기자)는 3만 5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7년 3785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1만 250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2009년 2만2만142명, 2010년 2만 6097명, 올해 4월까지 3만57명으로 7.94배나 늘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07년 말 1266억원에서 2010년 말 3046 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또 올해 1학기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지원받은 장학금은 작년 1 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년간 450 만원을 주는 '미레드림' 장학금은 2010년 1학기 4만7966건 841억 8100만원에서 올해 1학기 4만

8641건 1048억4600만원으로 증가 했다.

그러나 2009년에 2년 한시적으로 생긴 차상위계층 장학금(희망 드림·연간 230만원 지급)은 2010 년 1학기 400억1900만원(4만8670 건 신청 중 3만5547건)에서 올해 1학기 368억4400만원(4만1511명 신청 중 3만2702건 지급)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 장학금 수혜자가 줄어든 것은 신입생에 대한 고교 때의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 재학생 학점기준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키 6.4cm 크고 몸무게 10.54kg 늘었다

초·중·고생 20년 전과 비교해보니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운동·수면 부족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키가 20년 전과 비교해 최고 6.4cm 자랐고, 몸무게는 최고 10.54kg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증가속도는 최근 10년 사이에는 상당히 둔화, 우리 학생들의 체격이 어느 정도 클 만큼 커서 세대변화가 전체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만 학생과 시력이 나쁜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피부질환 학생이 10년 전보다 7배,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학생이 2배 이상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 747개교 초중고생 18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0학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초중고생 체격 좋아졌지만 비만율도 높아 = 2010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평균키는 150.24cm(이와 같은 여학생 151.16cm)로 2009년보다 0.26cm

(159.55cm), 고3 남학생 평균키는 173.74cm(160.93cm)로 역시 2009 년보다 0.05cm(중3 여)~0.22cm(중3 남)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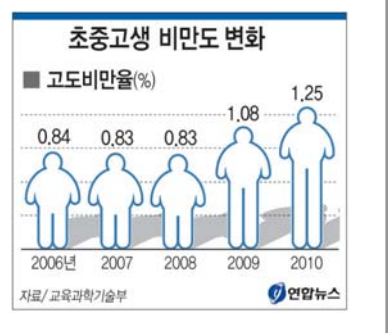
학생들의 키를 10년, 20년전과 비교하면 초 6 남학생은 10년 전보다 2.15cm, 20년 전보다는 6.15cm였고, 중3 남학생은 1.66cm, 6.40cm 커졌다. 고3남학생은 10년전보다 0.70cm, 20년전보다는 3.65cm 키가 컸다.

2010년 학생들의 몸무게는 초6 남학생 46.12kg(여학생 44.44kg), 중3 남학생 61.54kg(53.22kg), 고3 남학생 68.09kg(55.61kg) 등으로 2000년보다 최고 4.12kg(초6 남), 1990년보다 10.54kg(중3 남) 늘었다.

학생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비만 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학생들의 85.75%가 정상 체중인 가운데 비만학생비율은 14.25%, 고도비만율은 1.25%로 전년보다 각각 1.08%포인트, 0.17% 포인트 증가했다.

시력이상·피부질환 학생도 증가추세 = 시력이상 학생과 피부 질환, 이비인후과 계열 질환 학생



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력이상 학생비율은 2000년 40.15%에서 2006년 42.2%, 2008년 42.7%, 2010년 47.7%로 거의 매년 늘었다. 피부질환 학생은 10년 전인 2000년 0.56%에 불과했지만 2010년 3.89%로 7배 가량 늘었다.

고교생,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운동 안 해 = 주 1회 이상 패스트 푸드를 먹는 학생은 초등학교 53.44%, 중학생 59.58%, 고등학생 62.33% 등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이 63.59%로 가장 높았다.

매일 채소 등을 먹는 비율에서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학생들의 85.75%가 정상 체중인 가운데 비만학생비율은 14.25%, 고도비만율은 1.25%로 전년보다 각각 1.08%포인트, 0.17% 포인트 증가했다.

시력이상·피부질환 학생도 증가추세 = 시력이상 학생과 피부 질환, 이비인후과 계열 질환 학생



Advertisement for '희망Car 지원 캠페인' (Hope Car Support Campaign) by '호반건설' (Hoban Construction). The main slogan is '사랑은 나누고 사람은 하나되고' (Love is shared, people become one).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ampaign's purpose, eligibility, and contact information. A collage of photos shows people participating in various community activities.